

큰 스님 수행한담

“과거·미래 궁금하거든 현재를 보세요”



동산스님 <춘천 석왕사 조실>

- 약 력**
- 1914년 충남 공주 생
 - 1929년 4월 15일 수역사서 운서 호 스님 은사로 득도
 - 39년 7월 15일 심원사 강원서 사교수로
 - 41년 7월 19일 송광사 강원서 대교과 수로
 - 정혜사 대전심암사 천장사등 주지 역임

되지 않으실 겁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은 부처될 성품을 가졌다(一切衆生悉有佛性)'고 가르치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바로 그것이 내가 길손도 되고 주인도 되는 이치입니다. 내가 한량없는 지혜의 몸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게 있는 불성을 발현하려고 노력하며 사는 사람은 스스로 주인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저 될 대로 되어라 하고 살아 버리면 언제나 길손의 신세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요새말로 하자면 주체성을 가지고 사느냐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식으로 세상의 흐름에 이끌리며 사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부처님의 제자도 부처입니다.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 부처로서의 자성을 밝히기 위해 우리는 정진하고 수행하는 자세

그해 겨울, 그러니까 금강산에서 두번째 겨울을 맞았을 때 나는 만공스님을 모시고 유점사에서 동안거에 들어 있었습니다. 유점사 참선방은 제법 컸는데 겨울에 통나무 장작을 지퍼 불을 때면 그 크기에 어색하리만치 뜨끈뜨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 대종이 모여 정진하는 큰방에서 몇몇 젊은 수좌들이 의가를 투합하여 칠일칠야 동맹정진의 원을 세웠습니다. 칠일칠야의 정진이 한 사람의 낙오도 없이 잘 끝나고 서로를 출가한 얼굴이었는데 누군가가 '여기서 칠 것이 아니라 다시 이랬듯한을 더 정진하자'며 재발심을 제안했습니다. 동참하지 않았던 수좌

잘 모시라는 하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년가량 만해스님을 시봉하는 인연이 생긴 것입니다. 스님은 당시 <불교>라는 잡지를 간행하고 있었습니다. 선학원이 본사도 아니고 병구원을 이유로 잠시 머물러 온 것일뿐이었으니 내가 만해스님에 대해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그저 공양시간에 불권이 없도록 해 드리고 옷가지들 챙겨드리거나 스님의 출입에 불권이 없게 하는 허드렛일들이 내 역할이었을 뿐. 늘 대쪽같은 면모도 부드러운 스님의 표정을 나는 잊지 못합니다. 이미 스님은 일본 수사관들에게 '요주의 인물'이었던 까닭에 스님방을 수시로 드나드는 것이 고등계 형사들이었습니다. 일본인 형사도 드나들고 한국인 형사도 드나들었지요. 그런 와중에 나는 참으로 이상한 걸 보고 듣고 느꼈습니다. 일본인

을 지켜보던 한국인 형사 한명이 더는 못 듣겠다는 듯, 강연을 중단시키고 스님을 체포라도 하려는 듯 단상 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순식간의 일이었다. 스님은 '이놈, 어딜 함부로 뛰어 드느냐'며 그 형사를 발길로 걸어 차버렸습니다. 그 형사가 나뉘고나서 다시 식식 거리며 일어서 스님에게로 달려드려는데 일본인 형사가 그를 끌고 나가더군요. 스님의 강연은 이어졌고 그일로 별다른 고초는 없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가 진리의 당체이면서도 그 주인 노릇을 잘 하기는 힘듭니다. 시질이 어떻게든 세상이 어떻게든 진리의 몸인 인간, 다시말해 불성을 갖춘 중생으로서의 성품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오늘 갖추고 있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현재의 이 모습에 과거와 미래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습에서 참다운 자신의 모습이 뭔가를 찾아야 합니다. 육신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진정한 나, 곧 진아(眞我)를 찾는 일이 급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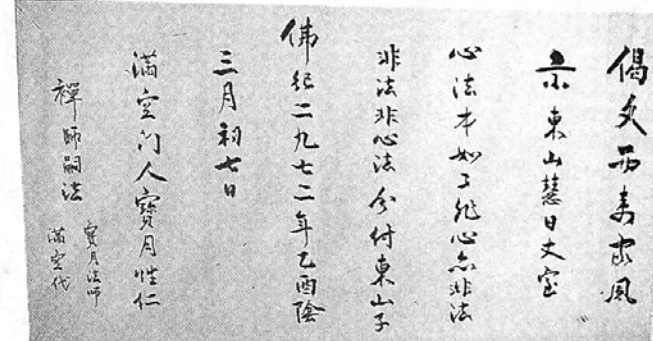
내가 나의 참 모습을 찾는데 두근두근 새겨보는 글이 있는데 바로 만공스님께서 해방이 되던해, 그러니까 1945년 음력 3

“손님과 객이 서로 볼 수 없는데 친하기가 물과 물소리 같도다”
금강산 가는 도중 들려주신 만공스님 계송 수행 이정표 삼아

들은 더러 말리기도 했지만 오히려 결사에 동참했던 젊은 수좌들은 '좋다. 한번 더 하자'는 쪽으로 합의가 되었고요. '탁탁' 어깨에 책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금강산 유점사의 겨울밤을 지키는 어느날이었습니다. 나는 어깨에 장군척비를 얹어 맞고 머리를 식히기 위해 조용히 방을 내갔습니다. 어김없이 화살촉 같은 밤바람이 온 몸을 엄습했고 불타기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아픔에 수미를 내동댕이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밤이 새고 아침이 되면서 도반들이 '어이 동산수좌, 자네 얼굴이 왜그런가. 아니 입이 돌아갔네. 그래, 이 노릇을 어떤단 말인가' 하며 야단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게 아니라 내 입이 돌아가 있었습니다. 밤바람을 잘못 쏘인 탓이었던 겁니다. 불가불 재발심의 결사정진에서는 빠져야 했고 만공스님의 주선으로 서울로 가는 뚝짐을 챙겨야 했습니다.

선학원에는 많은 스님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선객들을 다 돌보며 선학원의 살림을 꾸리신 분은 적음스님이었다. 스님은 나를 잘 보살펴 주셨습니다. 약도 지어 주시고 손수 침도 놔 주셔서 나는 생각보다 빨리 완치될 수 있었지요. 병든 자는 병을 이기는데 자신의 의지와 열 사람의 친절간 간호가 필요하다는 말은 예나 지금이나 진리입니다. 내가 조금씩 나아지는 도중에 적음스님은 내게 선학원의 원주 소임을 맡기셨는데 특히 조실방에 묵고 계시던 만해 한용운스님을



◇ '마음도 아니고 법도 아닌 법'은 정녕 무엇인가. 1945년 음력 3월 초 7 일 생신을 맞은 만공스님이 직접 동산스님에게 내린 전법계.

형사들은 만해스님에게 무례하지 않았습니까. '선생에 선세이(先生)를 연발하며 스님을 찾아 왔고 스님도 적당히 대접해서 보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형사는 달랐어요. 무조건 반말에 하늘이 부끄러울만치 뻣뻣한 태도로 스님을 대했던 것입니다.

하루는 스님이 종로의 무슨 강당에서 강연을 하셨는데 나도 따라가 경청을 했습니다. 물론 청중 가운데는 고등계 형사들도 있었지요. 스님께서 무슨 주제의 강연을 하셨는지 지금은 기억이 잘 안나지만 내용인즉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조국의 독립을 이뤄야한다는 것이 더러는 은유적으로 더러는 직적으로 더러는 직격의 강변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강연

월 7일(이날은 만공스님의 생신날이다)에 내려주신 전법계입니다. 글자에 얽매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 깊고 넓은 뜻을 나의 참모습에 합일시키려는 것이 내 수행의 요체란 것입니다.

심법본여여(心法本如如)
비심역비법(非心亦非法)
비법비심법(非法非心法)
분부동산자(分付東山子)

'마음법이 본래 여여하여 마음도 아니고 법도 아니다. 법도 아니고 마음도 아닌 법을 동산에게 나누어 부촉한다' 이것이 무슨 소실입니까. 함께 생각하며 또 한해를 함께 시작해 봅시다.

“불성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스스로 주인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저 될대로 되어라’ 하루하루 살면 언제까지나 윤회 못벗는 길손입니다”

음은 무엇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하기가 물과 물소리 같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길손입니다. 윤회라는 끝없는 길을 걷는 나그네인 것입니다. 그 나그네 길에서 더러는 좋은 모습으로 나기도 하고 흉한 모습으로 나기도 하는데 그것은 다 자신의 업보에 따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그네, 길손이면서 사실은 주인이기도 합니다. 피곤한 나그네에게 밥 한 그릇 대접하고 잠잘 방을 빌려주는 그런 주인이기도 하고 나그네를 박대하는 모진 주인이기도 합니다. 어떤 주인이 되느냐 하는 것도 각자의 업보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나는 지금 우리가 길손이기도 하고 주인이기도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잘 이해가

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공스님의 시에서 주인과 나그네는 누구일까요. '친하기가 물과 물소리 같다'는 마지막 구절을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 도량인 보덕굴을 찾아간 중생과 그 도량의 주인인 관음보살, 이 두 개체의 친하기가 물과 물소리 같다니 결국 하나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물이 없이 소리가 있을 수 없고 물 흐르는 소리가 나는 곳에 물이 없을 수 없으니까 말입니다.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진 것이므로 그걸 바로 알고 믿음을 굳게 가진 사람은 관음 도량에 가면 관음이 되고 미륵도량에 가면 미륵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무진무변의 법문이 만공스님의 짧은 시구에 두루 포함된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축년 새해를 시작하며 수행의 길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열아홉 되던 해에 정혜사에서 만공스님을 모시고 금강산을 향했는데 나는 첫 길이었고 스님은 서너번 금강산을 다녀오신 뒤였습니다. 나는 어린 마음으로 만공스님의 선사적 기상과 금강산의 장엄함이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외우는 만공스님의 금강산 시편(詩片)들이 있습니다. 보덕굴을 읊은 시와 비로봉에 올라 지으신 시가 나에게 금쪽같은 가르침이거든요.

단공불휴객(短筇不休息)
정당보덕굴(正當普德窟)
빈주불상견(貧主不相見)
친여수수성(親如流水聲)

짧은 지팡이 쉬지 않는 객이
정히 보덕굴에 당도하니
손님과 객이 서로 볼 수 없는데
친하기가 물과 물소리 같도다.

절창(絶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덕굴의 오묘한 형상이나 경외로운 전설만을 읊은 것이라면 한 목객의 단상(斷想)에 지나지 않을 것이지만 스님의 시심(詩心)은 시정을 뛰어넘는 곳에서 메아리쳐져 오는 사자의 울음소리를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손과 주인이 서로 만나지 않

옷을 만드는 일에는 '정성'이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사람은 왜 옷을 입는가' 라는 질문으로 어느새 30년의 세월이 흐른다'

입어서 자연스러운 옷을 만들기 위해 첫인상 따라 색상, 디자인을 결정하고 컴퓨터로 재확인 한다

예복이란 매우 특별한 날에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며 입는 옷

- 세계적인 이태리 원단 사용
- 95% 이상을 수작업으로 진행
- 맞춤복과 큰 차이가 없는 가격
- 컴퓨터를 통한 색상과 디자인 샘플링 작업
- 고객 자신이 미리 자신의 착용 모습 컴퓨터로 확인



예복의 집 SUN-SHINE 권오수 합장

“혼이 깃든 예복 장인 30년”

몸보다 마음에 맞는 옷 만들기

- 본 점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85-11 삼미B/D 1F
TEL : 514-1118/9
- 공항터미널점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6
TEL : 551-0833

사회자와 주례사 그리고 양가이 부모님들까지도 신랑 신부와 어울릴 수 있게 격의를 살린 예복을 갖춰야 합니다.